군종주보

2019년 9월 22일(제947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를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고통의 자유"

당신이 누구시기에 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눈이 멀게 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제 모든 것이 되셨습니까? 편히 몸 쉬게 했던 아랫목도, 한여름 더위를 날려 주었던 대청마루도 당신을 알게 되면서 지나간 꿈이 되었습니다. 아니 허망한 꿈속에 살고 있었던 저를 깨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축축한 동굴 귀퉁이가 저의 아랫목이 되었고, 당당히 고개들 수 있는 넓은 들이 대청마루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시기에 저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나이까?

우리 신앙 선조들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자유로웠던 신앙 선조들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그 떠올림에 제 발을 넣어 봅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잠깐의 상상만으로도 고통과 기쁨이 함께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고통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신비의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고 가셨던 그 고통.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 고통에 동참하며 살아갔던 신앙 선조들의 고통의 삶. 그 삶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다는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얻고 싶은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어지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어지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이 제 스스로에게 답처럼 들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어지는 십자가와 고통이 무겁고 아파서 스스로 외면하고자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히 맞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참고 이겨내 십자가의 자유로움과 고통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오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당신들이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자신을 버리고 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어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이승기(안토니오) 신부
해군교육사(교육사)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지혜 3,1-9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 서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복 음 루카 9,23-26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한국의 성인 복자 124위 — 이경도 가롤로

성인명: 이경도 가롤로 (李景陶 Charles)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80-1802년

어릴 때는 '오희'(五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경도(李景陶) 가롤로는 1780년 한양의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충청도 연기 군수를 지냈으며, 부친 이윤하 마태오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로서 외조부였던 이익의 학문을 잇고 있었다. 또 그의 어머니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에 기여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누이였다. 1802년 전주에서 순교한 이순이 루갈다와 1827년에 전주 옥에서 순교한 이경언 바오로는 그의 동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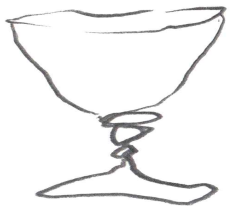
이 가롤로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실천하였다. 본디 성격이 온순하고 너그러웠던 그는, 장성하면서 학문에도 재능을 보여 교회 서적들을 연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비록 그는 어릴 때 병을 앓아 곱사등이가 되었지만, 그 자신의 신앙과 성품으로 이러한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였다. 1793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장남인 이 가롤로는 미신 행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발휘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장례를 치렀다. 이후, 그는 되도록 비신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면서 가족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최필공 토마스, 홍재영 프로타시오 등 몇몇 교우들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교리를 익히곤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이 가롤로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관장의 문초 때마다 "아는 신자들은 없으며, 교회 서적은 불태워 버려 남아 있지 않다."라고 거짓으로 자백하였다. 이경도 가롤로는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 새남터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것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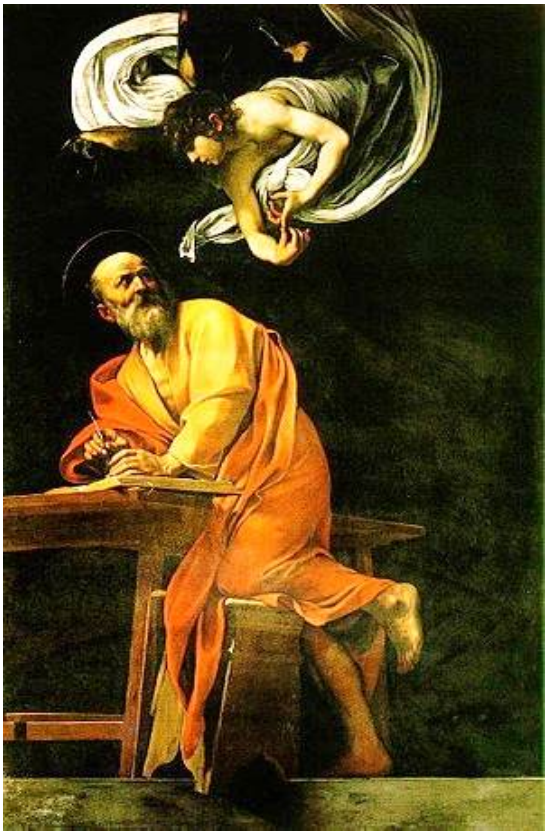
제가 드릴
제물은
이 눈물
한 방울뿐입니다.

이것이라도
.....

하지만
주님의 잔에
자신의 피를
채운 이들이 있습니다.

성화이야기

영감을 받는 성 마태오 복음사가



카라바지오, 1599-1600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292 × 186cm
신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의 콘타렐리 경당, 이탈리아 로마

지난주에 본 것처럼 경당의 왼편에 성 마태오 복음사가가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면, 중앙의 다소 좁은 공간에는 천사로부터 영감을 받는 복음사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새까맣게 어두운 배경에 오직 천사와 성 마태오 복음사가의 모습만이 빛나듯이 그려져 있는데,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한 천사는 자신의 날개와 아직도 흩날리고 있는 두꺼운 흰색 옷자락을 펄럭이며 공중에서 성 마태오 복음사가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말하고(혹은 손가락을 꼽아가며 설명하고) 있다.

성 마태오 복음 사가는 천사를 바라보며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열심히 저술하려고 하는 듯한데, 아직까지는 펜이 잉크병에 들어가(혹은 막 빼려고 하고) 있다. 급하게 책상에 당도한 탓인지 겉옷을 대강 걸친 채이며, 심지어 의자에도 앉다 말아 의자 한쪽이 바닥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 의자도 고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성 마태오 복음사가는 조금 더 나이 든 모습이고, 피곤하신 듯 눈이 충혈되어 보이나 그 눈빛만은 어둠을 뚫고 밝게 빛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순교자 대축일: 동해(해군) 권호섭 신부

◆ 교구장 동정

- 칠성(7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22일(주일)

- 레바논 동명부대 방문

때·곳: 9월 23일(월)~28일(토), 레바논 베이루트

◆ 국장회의

때·곳: 9월 24일(화) 15:00, 교구청 회의실

◆ '군종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종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모든 이를 섬기는 삶" -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